

월간규문 꽃만발 4월호 (4월 30일)

QMI

HOT ISSUE

5월 연휴,
당신께 권하는 이 한 권의 책
공부한다면 이들처럼/김득신

신자의 that's IT

Morzar piano sonata No.8 in A minor, K310

노닐 읽는 숙경

황정은 <야만적인 앨리스 씨>

이달의 선물

여기는
고전비평공간
trans-philosophy **규문**
입니다

규문은
동서양의 인문 고전을 읽고 쓰는
연구공간입니다.

다양한 강좌와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2층으로 올라오세요!

규문은 신교빌딩 2층에 있습니다.
<http://qmun.org>
TEL: 070-8239-8361



Hot Issue

단비 같은 오월 연휴! 이 책은 꼭 읽고 말테다!!

바람 살랑살랑 부는 화창한 5월. 오랜만에 맞이하는 긴~ 연휴!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여행을 준비하고 있나요? 아님 혼자서 하루 종일 TV 볼 생각에 부풀어 있나요? 이렇게 배반한 연휴는 NO! NO! 이번 연휴엔 규문의 처자들이 추천하는 책과 함께 하심이 어떠할지? 어이없이 긴 책부터 분량은 얇으나 묵직한 내용의 책까지 다양한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녀들의 책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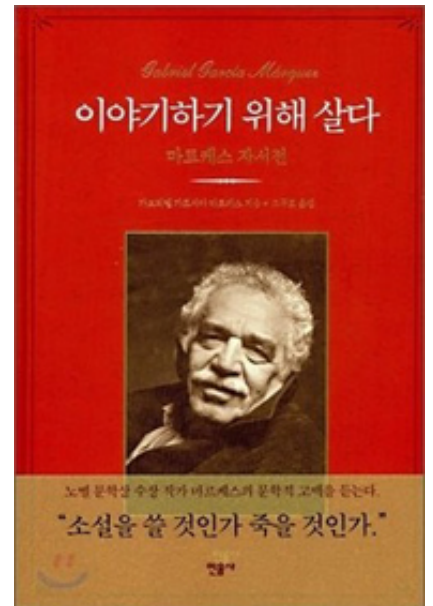
수경의 추천...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마르케스 저, 조구호 역, 민음사)

2년여 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얼마 전 그의 타계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그의 자서전 제목이었다.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 이십대에 문단에 등장한 이래 60년간 독자들에게 최고의 이야기를 선물하던 마르케스였다. 그런 그가 더 이상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좀 아득해졌던 게다.

마르케스는 소설에서도, 르포에서도 물론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지만, 그의 자서전 또한 (그런 게 있다면) 자서전계에서 ‘갭’이다. 어느 개인의 삶과 그가 사는 현실 세계의 역사, 그리고 그가 펜으로 직조해내는 세계가 질펀하게 몸을 섞는 현장을 보며 나는 거의 황홀함을 느낄 지경이었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지만 만약 내 곁에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있다면 손녀딸을 향해 술술 풀어내줄 법한, 옛날이야기+역사가 거기에 있다. 700페이지가 넘는 책이지만, 장담하건대 당신은 기나긴 휴일 중 단 이틀 정도만 할애하면 아주 즐겁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텔레비전을 켜지만 읽는다면, 맥주와 함께 단 하루만에라도!

덧붙이는 말: 이토록 뚱뚱한 책이건만 놀랍게도 여기서 마르케스가 다루고 있는 것은 유년기와 이십대 시절의 이야기가 전부다. 그는 차차 자서전 제2권, 제3권을 낼 계획에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그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다. 치매 판정 소식에 내가 그의 자서전을 가장 먼저 떠올린 또 다른 이유가 이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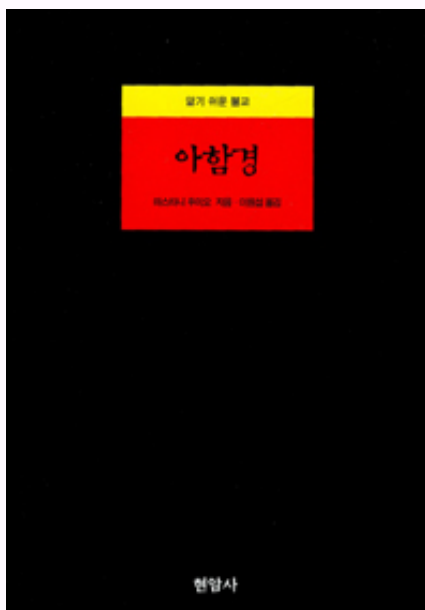


윤차장의 추천...

〈춘추전국이야기 1~6〉(공원국 저, 역사의아침(위즈덤하우스))

700페이지에 이어 6권 짜리를 추천하는 나를 욕하지 말라. 나도 꽤 망설였다. 게다가 아직 완결된 시리즈도 아니다. ^^;;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책에 흠뻑 빠져들 것이고, 틈틈이 인터넷 서점을 들락거리며 다음 권을 기다리는 재미가 더해질 것이다. 나 역시 그러하므로.

책을 펼치면 우리는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인간의 모든 삶과 사상이 폭발했던 춘추전국시대로 날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 책이 주는 즐거움은 단순히 그런 이야기에 있지 않다. 중국 전역을 발로 뚫어 저자에 의해 중국대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대륙을 탐사하게 될 것이다. 꿀맛 같은 연휴, 잠깐 일상을 떠나고 싶다면 아주 멀리 떠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태람의 추천...

〈아함경〉(마스타니 후미오 저, 이원섭 역, 현암사)

『아함경』은 불교 초기 경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해설서다. 저자 마스타니 후미오가 바라보는 붓다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는 붓다가 “생로병사를 두 어깨에 걸머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감행한” ‘인간’이었음을 강조한다. 신도 아니고 신과 인간의 중개자도 아닌 붓다. 어떤 극락도 약속하지 않았고, 자기만 의지하면 어떤 죄라도 소멸한다는 계약을 남발하지도 않았던 붓다. 붓다의 말처럼 성구(聖句)를 외는 사람은 단지 “남의 소를 세는 것 같다.” 후미오는 독자를 향해 힘주어 말한다. 당신의 넋을 빼앗기지 말고, 붓다의 길을 자세히 살피고 그가 어떤 장애물에서 벗어났는지 고요히 생각해보라고. 지혜와 실천에 대한 책임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붓다가 가르쳐주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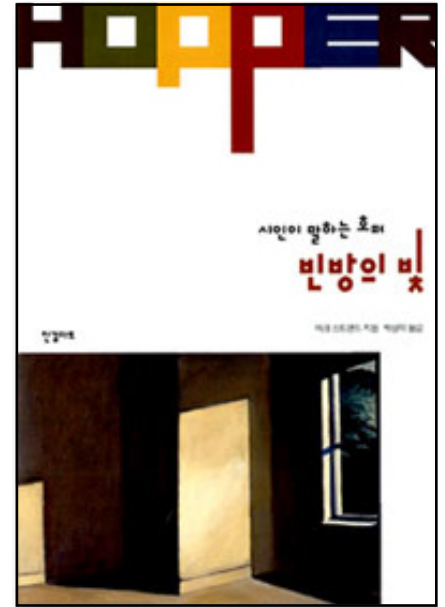
않느냐고 말이다. 마스타니 후미오는 붓다의 가르침을 이성의 법칙이라고 정의했다. 열에 들떠 있는 소용돌이 속에서 “차갑고 맑은 이성의 작용”을 통해 세상을 바로 보기, 이것이 인간 붓다가 우리에게 호소하는 가르침이다.

신자의 추천...

〈빈방의 빛〉 (마크 스트랜드 저, 박상미 역, 한길아트)

한참 호퍼의 그림을 좋아할 때 이 책을 한 장 한 장 아끼며 봤던 기억이 있다. 호퍼의 그림이 좋았고, 그림에 대한 코멘트도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인이 말하는 호퍼이다. 보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호퍼의 그림과, 실패하면서도 그런 그림에 다가가려는 시인의 글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하여 그것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된다. 어떻게 보면 그 둘은 한 쪽이 매달리고 있는 연인 같기도 하다. 물론 매달리는 쪽은 스트랜드이다. 그가 호퍼의 그림에 대해 “심난할 정도로 조용하고, 방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끝내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표현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 책은 그림과 글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그 둘의 어울림을 볼 수 있는 드문 책이다. 한가로운 휴가~ 아마 당신은 단연코 이 책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제리의 추천...

〈살아야 하는 이유〉 (강상중 저, 송태욱 역, 사계절)

저자는 아들의 죽음에 연이어 3.11 대지진을 겪었다. “납을 삼키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인생이 던진 혹독한 난제를 자신의 힘으로 응답하고 결단하는 저자의 모습이 담담하지만 감동적.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인생이 물어오는 것들에 답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ps. 짧다. 그러나 생각할 만하다)

공부한다면 이들처럼!

노둔함의 미학, 백곡 김득신 / 윤차장



여기 자타공인 노둔함의 극치, 둔재 중의 둔재,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이라는 사람이 있다.

말을 타고 어떤 사람 집을 지나가는데,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글이 아주 익숙한데, 무슨 글인지 생각이 안 나는구나.” 말고삐를 끌던 하인이 올려다보며 말했다. “부학자 재적극박 어찌고저찌고 한 것은 나으리가 평생 맨날 읽으신 것이니 쉰네도 알겠습니다요. 나으리가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 김득신은 그제서야 그 글이 <백이전>임을 깨달았다. 그의 노둔함이 이와 같았다.

(홍한주(1798~1866), <지수염필(智水拈筆)>)

어이없는 건 《사기》 <백이전>은 그가 평생 십만 번 이상 읽은 글이라는 거다. 십만 번은 하루에 열 번 씩 삼십 년은 읽어야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난다고? 벋들과 압구정에 올라 시를 짓다가 멋진 구절을 얻었다며 좋아라 읊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백의 시였다는 얘기는 어떻게? 정말 눈물 나게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꽃힌 건 바로 그의 노둔함이다. <백이전>을 십만 번 읽을 정도면 다른 글들은 오죽 했을까? 독수기(讀數記)에는 만 번 이상 읽은 글이 무려 서른여섯 편이라 적혀 있고, 만 번 이하는 아예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 상상이 되는가, 저 숫자가? 여기에 이르면 이런 생각이 든다. 공부는 총명함이 아니라 노둔함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둔한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은 반복, 반복, 또 반복 뿐이다. 단번에 이해되지 않는 글을 그는 읽고 읽고 또 읽었다. 하지만 그의 처절한 노력이 무색하게 글은 좀처럼 그의 몸에 새겨지지 않았다. 그래서 평생 읽고 잊고 읽고 잊고 읽고를 반복한 것이다.

“증삼은 노둔하다(參也魯)” 공자는 그의 제자 증자에게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물론 그가 김득신과 같은 둔재라는 뜻은 아니다. 논어에 나오는 증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과의 관계에서 진실했는지, 벗들과 사귀에 미더움이 있었는지, 배운 것을 열심히 익혔는지 자신을 살폈고, 죽기 전까지 평생 살얼음 위를 걷듯 조심 또 조심하였던 사람이다. 일견 답답해 보이지만 그의 삶 어디에도 약삭빠름, 조금함, 편법이라고는 없어 보인다. 자기를 갈고 닦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경건한 삶의 태도. 그런 증자의 모습을 공자는 노둔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득신은 증자만큼 진지하고 성실했으므로 진정 ‘노둔하다’. 머리의 노둔함으로 이루어낸 노둔한 삶. 멋지지 않은가.

일천한 나의 공부 이력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텍스트를 만났을 때 오히려 온 힘을 쏟았던 것 같다. 문제는, 읽고 이해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텍스트를 만났을 때다. 후루룩 국수 면발 넘기듯 꿀꺽 삼켜 버리는 책읽기. 내가 지금 이해가 된다고 읽어 치우고 있는 이 텍스트가 정말 그렇게 쉬운 텍스트일까? 내가 정말 이해한 게 맞나? 나는 최근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자 덜컥 두려워졌다. 전전공공의 과정이 뭉텅 생략된 책읽기는 내 몸에 무엇 하나 남기지 않겠구나.

아! 어려서 깨달아 기억을 잘한 사람은 세상에 적지 않다. 날마다 천 마디 말을 외워 입만 열면 사람을 놀래키고, 훌륭한 말을 민첩하게 쏟아내니, 재주가 몹시 아름답다 하겠다. 하지만 스스로를 저버려 게으름을 부리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그만두어버리고, 늙어서도 세상에 들림이 없으니, 공과 견주어본다면 어떠하겠는가?

이서우(1633 ~ ?)는 이와 같이 말했다지.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소망하는 그 잘난 재능과 총명함이란 오히려 공부에 있어서 큰 장애물일 뿐이라고. 그 잘난 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긴긴 날들을 그렇게 노력했던 김득신은 결국 56세에 과거에 급제했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큰 이름을 얻었다.

총기를 경계한답시고 노둔한 머리를 바랄 수는 노릇이고, 그의 노둔한 삶, 공부에 있어서의 성실함과 끈질긴 노력은 진정 내 것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내가 갖고 싶은 건 천재적 두뇌도 뭣도 아닌, 김득신과 같은 몸. 긴 시간 지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몸이다.

신자의 that's IT

Morzar piano sonata No.8 in A minor, K310

(Maria Joao Pires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집 中)

이번 달 가장 IT 했던 건 클래식이었다. 내가 생각해도 참 의외다. '락!'을 좋아하는 내가 클래식이라니! 클래식에 조예가 깊은 친구 덕택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것저것 듣기는 했지만, 교향곡은 지루했고 피아노 소나타는 심심하기만 했다. 그녀에게 끌려 공연도 많이 다녔으나 좋아하려 애썼던 기억만 있다. ^^; 그나마 좋아했던 건 오페라. 내 귀는 스펙타클한 걸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런 내가 요즘 클래식, 그것도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8번 k310에 푹 빠져있다. (클래식 제목에 붙는 숫자들은 영 익숙해지지 않는다. 뭐랄까, 좀 켄 체하는 느낌이랄까? ^^::) 물론 모든 연주자의 연주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내가 매혹된 건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연주다.



그녀를 알게 된 건 요즘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 '밀회'를 통해서다. 유아인의 악보에 피레스의 사진이 있었는데 연주를 하고 있는 표정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녀의 신상과 음악을 찾아보게 된 것. 연주는 막귀를 감동시킬 만큼 멋있었다!! 하여 부랴부랴 산 앨범이 Maria Joao Pires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집. 그 중 가장 끌렸던 것이 K310이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가장 힘든 시기에 작곡한 것이라고 한다. 이 작품은 1778년 초여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해 파리에서 머문 6개월은 모차르트에게 최악의 시간이었다고. 공연은 연달아 무산되었고, 병이 악화된 어머니는 결국 그 해 7월 세상을 떠나고야 만다. 그래서 흔히들 이곡을, 불안하고 또 불행했던 그때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곤 한다. 실제로 들어보면 가벼운 소나타들 가운데 가장 어둡고 불안한 느낌이 있긴 하다. 자필 악보의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음표들이 그런 느낌을 더욱 강화시킨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다른 연주자들은 이 곡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선 피레스의 스승인 칼 엔겔(Karl Engel)의 연주를 들어봤다. 그는 감정은 배제한 채로 음표

하나하나를 충실히 연주한다. 그와 완전히 대조되는 연주자로는 미츠크 우치다가 있다. 그녀의 연주는 걱정 그 자체. 당시 모차르트가 의도했던 것이 그 때의 불안과 긴장,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녀의 해석이 가장 정확할 듯싶기도 하다. 만일 번뇌의 폭류에 소리가 있을 수 있다면 이런 소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20대에 이 연주를 들었다면 엄청 열광했을 듯.) 또 한 명의 거장 글렌 굴드는 음반을 두 배 빠르게 돌린 것처럼 연주하는데, 연주라기 보다는 손가락을 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순전히 내 개인적 느낌이다.^^ 여러 연주를 듣고 다시 피레스를 들으면 그녀의 연주가 더 좋아진다.

그녀의 연주는 내가 처음 반했던 그 표정과 닮아 있다. 설명하지도 강요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보여줄 뿐. 나는 어느새 거기에 푹 젖어든다.

내게 클래식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킨 페레스의 모차르트!! 꼭 들어보기를 권한다!!

노심 읽는 수경

야만적인, 너무나 야만적인 - 황정은 <야만적인 엘리스 씨>

황정은의 『야만적인 엘리스 씨』를 읽었다. 한 권의 단편집과 한 권의 (경)장편소설을 읽는 사이 호감도가 급상승해 신작 출간 소식을 접하자 주저함 없이 구입했다. 전작들이 그랬듯 이번에도 이야기는 짧았고, 그래서 금세 읽어버렸고, 그래서 아쉽고 아쉬웠다. 시 같고 음악 같은 문장에 취해 있다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 그새 내가 작품 하나를 다 읽어버렸더라.

아, 시 같고 음악 같은 문장이라고 써버리면 아직 읽지 않은 이들의 오해를 살지도 모르겠다.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비뚜름한 자세로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요컨대 여장한 노숙자를 화자로 내세운 이 작품은 실은 그/그녀의 냄새 나는 이야기, 읽고 있노라면 기분 참 더러워지는 이야기다. 그런데 나로선 바로 그 점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도 그럴 것이 백민석 이래(십년 만에 그가 귀환했다. 그의 작품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렇게 불쾌한 화자가 불러제끼는 노랫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여장 부랑자 엘리스어, 악몽 같은 체취를 몸에 두르고서 사거리에서 있는 이 존재는 허공을 향해 “그대”라고 호명한 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한 번 화가 나면 기어코 ‘씨발년’이 돼버리는 엄마, 그런 엄마를 피해 도망갔다 모래언덕에서 질식해 죽은 어린 동생, 그들과 함께 살던 쓰레기-마을 ‘고모리’. ...그래, 당신 짐작이 맞다. 이 작품도 수많은 한국 현대소설들처럼 도시 재개발과 가정 폭력을 소재로 취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화자가 우리로부터 가장 먼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 엘리스어는 전통적 리얼리즘 서사를 이끄는 점잖은 화자가 아니라 욕하고 말 멈추고 했던 말을 반복하는 미친년/놈이라서, 우리는 말이 지시하는 ‘사실 정보’가 아니라 ‘말 자체’에 놀아나게 된다. 여기 있는 말들은 소위 ‘객관세계’를 경험케 하는 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하지만 병신 엘리스어의 끔찍한 목소리는 나로 하여금 하나의 ‘정서’를 겪도록 했다. 그러니까 미친 엄마의 세찬 주먹질과 급우들의 놀림과 무시에 종일 시달린 어린 형제가 ‘씨발’ ‘자지보지’라고 소곤거리는 그 어둔 방의 정서를.



형, 오늘 개 봤어?

…….왜.

봤냐고.

봤다.

보지 말고 자지.

뭐?

보지 말고 자지.

자지 말고 보지, 보지 말고 찌, 자지, 자지 말고 보지, 보지, 하고 앨리시어의 동생은 웃는다. (28)

여우는 기다렸다. 장례식이 끝나고, 인간들이 자신을 가둬두었던 방의 문을 여는 때를 기다렸던 거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여우는 진정한 여우가 되어서, 씨발, 이러면서, 인간을 덫쳤던 거다. 씨발 쌍년의 맛을 보여줄까, 씨발의 맛을 보여줄까, 씨발, 내가 씨발, 나는 씨발, 이러면서 온 집안을 완전 씨발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씨발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 (35)

〈야만적인 앨리스 씨〉를 읽는다는 건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읽는 일이다. 충분히 멋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괴물 같은 인종의 호홉이 어느새 서사를 흐들흐들 풀어버리는 광경을 보았으므로. 그래서 책을 읽으며 이런 생각들을 했다. 아, 나도 이런 씨발스런 문장을 쓰고 싶구나. 하지만 아 그래도 현실에서는 야만적인 앨리스가 손 내밀고 내게 비틀거리며 오지는 말아주었으면. 아, 그래서 앨리시어가 지껄이다 말고 자꾸 그랬구나. “그대 어디까지 왔나.” 우리 청결주의자들, 결코 앨리시어의 “그대”가 되고 싶지 않은, 그가 서 있는 곳을 피해 빙 돌아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나는 보고말았다.

이달의 선물

신자 현미쌀

돌아온 탕아. 규문에 현미쌀을 투척하다. 흥! 또 도망가면 가만두지 않겠어!

은남쌤 토마토

처음 먹어본 대저 토마토!! 오오~ 토마토의 신세계!!

혜경쌤 원두

신 맛이 일품인 물 건너온 브라질 커피^^ 점점 입맛만 고급이 되어가는 듯~^^;;

은남쌤 차, 오미자, 매실 액기스

몸에 좋은 차 삼중세트! 맛난데 몸에 좋기까지 하다니~

윤정 레몬차

목이 칼칼할 때 너무 좋은 레몬차! 잘 먹고 있습니다요. ㅎㅎ

